

사설

“스님 노후걱정 마세요”

노후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걱정은 어제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10여년 전에도 스님들의 노후를 위한 복지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분 아래 조계종 총무원에서 서화전을 열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모두 말뿐인 일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도 어느 무료양로원에는 오갈데 없는 노스님들이 일반인들 틈에 끼어 서글프게 생의 마감을 기다리고 있다.

스님들은 무소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서도 안되며, 욕심을 내면 더욱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스님들의 생활보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곳에 서처럼 따로 생활을 걱정할 필요 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열중하면 그만이고, 모든 의식주와 의료혜택에 따른 각종 복지정책이 사회적·정치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무소유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1만불의 소득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빈곤한 자본주의 현실사회에서 무소유로서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이 평생 수행과 포교만을 했다고 한다면 무의탁 수용소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해야 할 출가 스님들이 간혹 종단의 권력과 주지 자리에 기웃거리며, 세속인들 눈에도 불성시나온 분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행히 근래들어 스님들의 분규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교에 대한 관심이 돋보이고 있으며, 외적으로도 종단의 모습이 안정되어 가는 느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8월27일 조계종 총무원장이 발표한 하반기 종단사업계획의 발표에서 출가 수행자들의 획기적인 노후복지에 대한 대책을 추진

한다고 하여 모두들 생수로 환영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97년 1월부터 40세 이상의 스님을 대상으로 하여 재해나 질병시에 의료비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지만 잘못하다간 1회용으로 끝나지 않을까 자못 염려스럽기도 하다.

사실 이제까지 출가스님들이 늙고 병들면 연락없던 속가 가족의 신세를 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은 가장 시급한 급선무라고 본다.

김영삼정부의 대선공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은 하루빨리 이행되어야 한다.

불교종합병원이 있는 홍콩이나 대만의 자재공덕병원에서는 모든 출가스님은 진찰·입원·요양이 전액 무료다.

태국이나 미얀마보다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도 가능한 일이 라고 본다.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불교병원의 건립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말로만 성사시키는 추진이 아니라 일시에 달려들어야 시행한다면 이 병원건립의 문제는 하등에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딱히 병원문제 말고라도 스님들의 노후복지는 각 본사마다 노스님들의 처소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 말사주지의 사자계승 제도를 검토하여 노스님 봉양의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한다.

선학원 문제나 사실사람 등록문제도 결국 노후보장에 대한 불안이 없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고 본다.

죽음은 내일의 문제지만 병고와 늙음은 현실적인 오늘의 고통이다. 수행자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하려는 조계종의 복지정책이 꼭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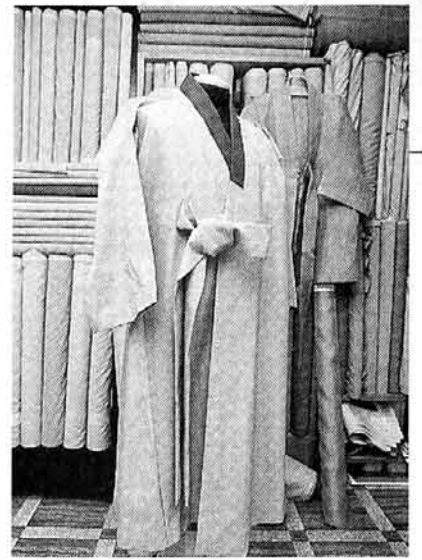
열린마당

의제개혁

조계종 총무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8월23일 의제위원회(위원장 혜창)는 2차회의를 갖고 사미(니)의 복장에 고동색 깃(동정)을 착용토록해 비구(니)와 구별토록 하고 행자복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동색으로 확정했다. 또한 중사급이상 비구는 대가사와 금관가사를 수하고 비구(니)는 현행 대가사 및 반

가사, 사미(니)는 오조가사 및 민의를 수하도록 했으며 가사의 조수등 세부규정은 다음 회의에서 확정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제개혁안은 오는 11월 중앙총회에 의제개혁법(안)을 상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제를 개혁해야 하는 의미와 그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의제위원회는 사미복장에 고동색 깃을 착용케 해 비구와 구별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혜창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종단에서는 현재 의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제개혁은 단순히 승복이나 가사를 현대적으로 바꾼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율장이나 청규정신에 입각하여 승가의 의식을 개혁하고 승가가 갖추어야 할 승종진작에 큰 의미가 있다.



1차적으로 사미(니)와 비구(니)의 승복에 차별화를 두는 것은 개혁법에 사미(니)는 예비승려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제개혁작업은 종현종법을 준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이다. 승가가 인연의 사표가 되며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전법도생하기 위해서는 변복수행이나 화두선만 드는 것이

“율장·법의 정신에 입각 승단 법계 재정립 추진”

전부가 아니다.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승가 나름대로의 위와 승단질서 확립이라는 굳건한 기초위에 모든 수행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생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과 같다. 이후로 종단은 법계정수와 승가교시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교단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며 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을 율사스님을 주축으로 의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수집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계속적인 의제개혁을 통해 허물어진 승단의 법계를 재정립하고 율장과 법의 정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화합종단이 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지명스님 <청계사 주지>

스님들의 의제개혁은 내적인 법계질서와 외적인 사회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수행년한이나 법계에 따라서 의복의 형태나 색깔을 다르게 함으로써, 초심 사미승과 비구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또 비구 가운데서도 복장의 차별을 두어 위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사미는 아직 완전한 승려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개혁종단 이전까지는 사미와 비구가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사미계만 받고서도 승려로서 행세하는데 불편이 없었다. 사미와 비구, 그리고 각 법계가 복장만으로도 구

“사미·비구 옷구별 ‘찬성’ 예복·평상복도 구분을”

별된다면, 사미승들이 비구계를 받기 전까지 초발심을 늦추지 않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받게 될 것이고, 낮은 법계의 비구들은 더 높은 법계에 오르려고 수행에 몰두하거나, 높은 법계의 선배들을 알아모시게 될 것이다.

둘째 승복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당에서는 예식복을 입어야 하고, 잠잘 때는 잠옷을 입으면 족하다. 일할 때는 노무복을, 장터에 갈 때는 평상복 또는 사복을 입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잠옷, 노무복, 사복이 없다. 승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는 장소에서조차 도포지락을 팔려버려야 한다. 대중목욕탕에서조차 화장 팬티를 입게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승려들에게 과감히 사복을 허용함으로써, 복장에 의해서가 아닌 수행력과 인격에 의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존경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우스님 <파계사 영산율원장>

어느 누가 봐도 첫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옷을 입고 위의를 갖춘 비구에게서 우리는 ‘스님’이라 부르고 존경과 공경을 한다. 검정색 장삼에 딱딱한 옷감으로 정갈 되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렸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했다.



절집에 전통적 어른 스님네들의 말씀에 ‘있는 법 없애지 말고 새 법 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현재 조계종의 의제는 몇 백년 전통과 인습에 확고부동의 위치에 있다. 옷(가사·장삼)을 바꾼다 해서 수행자의 법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본질적 의미에서 불필요한 소모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겉옷으로 수행력 평가 승풍진작에 도움 안돼”

실제로 행자교육원을 수료하고 사미계를 받은 이들에게 민의가사를 나눠주지만 그 가사를 수하는 사미들의 수는 반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보면 비구니계에서 근거없는 청관가사를 수하겠는가? 그 제도에 비구니가 응하겠는가? 사미, 사미니들이 응하겠는가? 법을 만들자 곧 사문화 될 법을 왜 만드는가? 스님의 위상은 옷이나 가사에 있지 않고 스님다운 바른 수행에 있음으로 외형적 모든 것을 저버린 우리 출가본연의 자세에서 점검하더라도 이번 의제개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법다우면 말하고 법답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니, 나중에 뒤우침이 없게해야 하느니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모르느라 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현대만평



노후연금 실시

목어

조계종 총무원이 ‘새 집’을 지으려 한다. 중앙종무기구의 사무실과 문화시설까지 갖춘 불교종합회관을 건립한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지금의 청사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본부건물로는 협소하다. 넓기도 했다. 그러나 불교종합회관 건립은 그래서 계획된 단순한 ‘집짓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새롭게 열기 위한 뜻깊은 불사라고 생각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 땅 팔아 조계사 경내에 새로 지은 5층

회관으로 이사한 것은 1975년 가을 11월쯤이다. 그때까지 총무원은 동국대학교 교정에 있었다. 새 집에 들어와 한달쯤 지났을 까. 12월24일밤 이상한 사람들이 무전기를 귀에대고 나타났다.

‘새 집’ 지으려는 조계종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이복과 교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하로 내려가시오.” 그날밤 침입자들은 종단개혁을 외치며 종권을 내놓으라고 종정 스님을 위협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조계종 해프닝은 이튿날 아

침 끝났다. 그날 이후 불자들이 사이에 이런 말이 오르내렸다. ‘경봉스님이 그 자리에 회관을 세우면 종단에 바 탕갈날 없으니 꼭 지으려면 법당보다 낮게 지으라’고 하셨다.”

그 사건 이후 불교회관에는 쇠창살이 생겼다. 종정 집무실부터 시작하더니 20년이 지나서 중앙총과 총 사이에 쇠문이 설치되고 나중에는 현관문에 두툼한 쇠뎀문이 장착되기도 했다. 입열이 거뚱거뚱 부끄러운

사연이 점철된 창살과 쇠뎀문은 지난 94년 개혁이후 모두 철거됐다. 그리고 이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새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새 불교운동에 나선 월주스님의 ‘발심’이라고 본다. <화엄경>에서는 발심의 이유를 이렇게 설하고 있다. “중생의 괴로움을 길이 없애고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발심한다.” 아무쪼록 새로 건립되는 불교종합회관이 이러한 발심의 뜻을 피우는 산실이 되길 기원한다. 더불어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정도로 견고하면서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시대의 명품(회관)이 탄생되길 기대한다.

새벽별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이와같이 살라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법구경>

맑고환기름계모임 회주 변정 Tel. (02) 741-4696~7

•소떡새마을: (0371)762-987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2리 1320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후원자가 되실 분은 승가원으로 전화 주세요.



노랭이 보각스님

‘보각’이라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스님은 얼마나 노랭이인지 도반들은 물론 사제들에게도 밥 한 그릇 사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밥을 산다고 해도 극구 사양합니다. 보각스님은 설법 잘하기도 소문이 나서 전국 곳곳에서 스님에게 법문을 청하는데 벌어들이는(?) 거마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중앙승가대학 교수 월급도 있습니다. “스님, 그렇게 돈 모아서 뭘 하실 겁니까?”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면 보각스님은 씩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이내에 소떡새마을을 3천명이 함께 사는 복지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원을 부처님 앞에서 세웠습니다. 스님 양로원도 지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소떡새마을

셔틀버스 운행 안내

-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조계사에서 소떡새마을까지 버스를 매일 운행합니다. (월요일 제외)
- 오전 7시30분: 조계사 입구 출발
- 오전 8시10분: 동서울 터미널 옆 우성아파트 101동 후문 앞 마을버스 정류소 경유.
- 오후 3시 정각: 소떡새마을 출발 (토·일요일은 2시)
- 오후 5시30분: 안압동 중앙승가대학 도착.